

이에 따른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자. 인문,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논술 문제들을 통해 근본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해력
- 둘째, 비판적 사고력
- 셋째, 문제해결능력
- 넷째, 논증 구성력
- 다섯째, 의사소통능력

우선, 논술이 입시와 관계되는 한 논술 문제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수학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일차적으로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 교양에 관한 서적들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논술시험은 다양한 저술로부터 발췌된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논술시험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학문은 항상 주어진 과제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정보사회 속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한 가지가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제 속에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술시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수험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또한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논술시험은 논증 구성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기준에는 각 문제가 중점을 두어 가능하고자 하는 능력과 지식이 포함되며, 문제가 요구한 바를 빠짐없이, 적정하고 수준 높게 답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모든 답안에서 항상 고려되는 분량, 표현, 정서법 등을 평가한다.

2.

2019학년도

인문계열 1회차 해설

[1회차 인문계열문항 1] 제시문 요지

<가> 헨릭 입센 (김석만 역), 『민중의 적』, 범우사, 2006(1882), 제5막, 96-99쪽을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가>는 시민들에게 개발을 통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선동하는 시장과 주민들에 맞서 이를 저지하려는 스톡만 박사의 이야기이다. 시장은 마을이 휴양지로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고, 학교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주택단지가 새로 조성되면 마을 주민들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맞서 스톡만은 보고서를 들고 단상에 올라 온천이 오염되었다며 시장에 반대한다. 하지만 주민들과 신문기자들은 스톡만의 말을 저지하며,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투표를 하자며 밀어붙인다. 스톡만은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제시문 <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충분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소수자 권리가 침해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 서병훈, 『포퓰리즘』, 책세상, 2008, 137-140쪽을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포퓰리스트의 특징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하며,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간단하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통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르게 된다.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쟁을 선점해버리고 소수의 의견을 반인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을 주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중들이 현혹되고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이 왜곡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 존 개스틸, 피터 레빈 (장용창/허광진 역),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시그너처, 2018, 58-59쪽을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민주주의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절차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방식인 투표나 여론조사는 개인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새로운 민주주의는 토론과 논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과 자원에 대한 합의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제도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인 것이다.

[1회차 인문계열문항 1]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 문학작품과 포퓰리즘 이론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함
- 자유롭고 이성적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현대 심의 민주주의의 대안적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함

논제는 시장의 선동에 시민, 언론사 기자들이 합세하면서 포퓰리즘 정치가 형성되는 <가>의 문제 상황을, 포퓰리스트 정치의 특징이 기술된 <나>의 입장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심의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는 <다>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논제에 대한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 기술해야 한다.

- <가>의 문제 상황을 이해한다.
- <나>와 <다>의 논지를 이해한다.
-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의 문제 상황을 분석한다.
-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회차 인문계열문항 1]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이해

- 시장과 시민, 신문기자의 포퓰리즘 선동
- 스톡만의 소수 의견 목살
 - Key Word : 부자 시민, 온천 수질 오염, 마을의 생명, 스톡만 보고서, 투표, 다수의 원칙, 다수의 민중, 다수의 의견, 소수의 권리

② 제시문 <나>의 논지 파악

- 포퓰리스트의 특징: 직설적, 단정적 어투, 문제 단순화, 즉각적 가시적 효과가 있는 대안 제시, 소수의견을 반민인민적인 것으로 간주
 - Key Word : 직설적, 단정적 말투, 단순 정치, 이분법적 세계관, 이원화, 여기/지금, 즉각적인 일, 먼 미래의 일,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인 대안, 인민의 진정한 대변자, 인민의 이익, 중장기적 과제, 타인의 고통,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③ <나>의 입장을 활용하여 <가>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기술

- <가>의 시장, 시민, 신문기자의 언행이 <나>의 포퓰리스트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 (단순히 <가>와 <나>의 입장을 순서대로 요약하는 것은 감점함)

④ <다>의 논지 파악

- 선호와 의견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의 한계 지적
- 선호와 의견이 토론과 논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나 여론조사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

· Key Word: 합리적인 결정, 자유롭고 상호적인 이성적 토론, 다양한 목소리, 이성적 설명, 협력과 상호정당성, 고정된, 분명한, 일관된 선호, 공유된 이익, 공유된 자원, 합의의 형성, 선호체계의 변경, 시민성, 토론의 장

⑤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

- 스톡만의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함
 - 시민들의 의견이 토론과 논쟁과정에서 바뀔 수 있음
 - 투표를 밀어붙이기보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지 충분히 논의해야 함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토론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단순히 <다>의 진술을 요약하는 것은 의미 없음)

[1회차 인문계열문항 1] 모범답안 예시

<가>에서 시장은 시민들에게 부자 시민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온천과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문기자와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톡만 박사는 보고서를 근거로 온천 수질의 오염을 경고하며 마을의 생명을 지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톡만의 소수의견은 시장과 주민들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나>에서 제시된 포퓰리스트들의 행태로 설명될 수 있다. 스톡만은 수질 오염의 문제를 제시하지만, 시장과 주민들은 중장기적 문제보다는 당장의 마을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 구도로 논점을 물고 가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인민의 이익을 내세워 투표를 밀어 붙이면서, 스톡만의 문제제기를 제지한다. 그들은 스톡만의 반대는 반인민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민중의 당면한 이익을 위해서 개발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스톡만 박사가 수질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의 생명을 지키자고 호소하지만 시장과 주민들에 의해 의견을 개선할 기회조차 빼앗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애초에 가졌던 선호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시문 <가>의 시민들이 일단은 온천과 리조트 개발에 찬성하지만, 만약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성적인 토론을 거친다면, 장기적으로 무엇이 마을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성찰할 수 있고 원래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호 변경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논쟁을 거듭하면서 더 나은 논거들이 제시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 논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회차 인문계열문항 2] 제시문 요지

<가>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번역,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04, 52-54쪽 발췌 후 재구성

<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는 신화로서, 역사적 비극을 신화적 가치관으로 재해석해 내는 모습이 실려 있다. 일본의 단노우라 지역 주민들은 비극적으로 패전하며 숨겨간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얼굴과 닮은 계를 먹지 않고 바다로 되돌려 주는 풍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신화 형성의 심리적 과정을 추론하게 하는 현장감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과학적 풀이로서, 그러한 신화를 현대 과학적 지식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술자는 그 계의 등딱지에 나타난 찌푸린 사무라이의 얼굴을 인위 선택의 한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신화의 어렴풋함에서 독립시켜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틀을 제공한다.

<나> 김용석, 『메두사의 시선』, 푸른숲, 2010, 211-228쪽 발췌 후 재구성

<나>는 인간에게는 우연하고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 그 인과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욕구나 본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이러한 욕구나 본능은 위기의 시기에 더욱 강박적인 믿음이 되고,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적 불쾌감은 물론 불안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인과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면서까지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애쓴다고 본다. 나아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비한 세력과 연관 지어 생각함으로써 초월적인 믿음으로까지 가지치기해 나감을 말하고 있다.

<다> 데이비트 헬펀드 지음, 노태복 번역,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더퀘스트, 2017, 42-43쪽, 384-387쪽 발췌 후 재구성

<다>는 과학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 나왔는가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반증을 통하여 과학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의 설명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과학이 비록 우리에게 이해의 가능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학은 수정해야 할 것이 많으며, 그런 수정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회의주의'라고 말한다. 그 회의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가설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1회차 인문계열문항 2]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이 문제는 <가>에서 보이는 두 시각을 <나>와 <다>의 관점과 연관 지어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다. <가>에는 세상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시각과, 세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보인다. 계의 등딱지에 새겨진 무사의 얼굴을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선조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세상을 신화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 등딱지에 새겨진 무사의 얼굴은 인위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것은 '세상을 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하겠다.

<나>는 인간에게는 신비한 자연 현상을 인과율로 설명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신화와 종교가 생겨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과율적 설명, 설명할 수 없을 때의 불안감, 설명을 하기 위해 신비한 힘의 존재를 이끌어 내면서 신화와 종교로 이어진다고 본다.

<다>는 인간은 신화를 반증 가능한 과학적 방식으로 설명해오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를 신화의 어렴풋함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에 의미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적 사실이나 추론도 언젠가 회의주의를 통하여 검토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과학이 더욱 견실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출제자는 이 세 지문의 관련성을 포착하고 이를 정확한 작문을 통하여 개진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나>의 인과율의 과정을 <가>의 단노우라 어부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다>의 과학적 효용과 한계를 <가>의 서술자의 태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논제는 <가>에서 보이는 두 현상에 대해, <나> 지문과 <다> 지문의 관점에서 이해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다. <나>를 <가>에 적용시키면 단노우라 지역 후손들의 생활 방식은 인과율이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의 태도는 <가>의 서술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다>에 나타난 신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가>의 서술자가 신화를 대하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적 추론 또한 회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가>의 서술자의 추론인 '인위 선택' 또한 회의의 대상이 된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① <가>에 나타난 일본 단노우라 어부들의 신화적 이해와 서술자의 과학적 이해를 이해한다.
- ② <나>의 논지가 <가>의 어부들의 이해 방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 ③ <다>의 논지가 <가>의 서술자의 이해 방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 ④ <다>의 과학적 '회의주의'를 <가>의 서술자의 추론에도 적용한다.

[1회차 인문계열문항 2]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의 기본 요소

- 답안이 질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 체계가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 답안의 내용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나>와 <다>의 요점 파악】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각 제시문의 중요 논거를 정리하며 두 지문의 관점을 대조,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

① 제시문 <나>의 논지를 파악한다.

- 인간에게는 인과율로 세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능과 욕구가 있음(실제 요약의 표준형은 모범 답안 첫 단락 참조)

② 제시문 <다>의 논지를 파악한다.

- 과학은 우리를 신화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줌. 하지만 과학적 추론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과학적 회의주의를 통해 진보해 나감.

· Key Word :

제시문<나> 인과율, 믿음, 위기의 시기, 불쾌감, 불안, 신화적 믿음, 인과적 믿음, 초월적 믿음, 긍정적인 힘

제시문<다> 반증가능, 가설, 과학적 이해, 신화, 신화의 어렵풋함, 세상 인식 방식, 잘못된 과학적 추론, 회의주의. 다른 지역의 자연 현상

【제시문 <가>의 현상과 관련짓기】

-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두 현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나>, <다>와 연관 짓기
- <나>와 <다> 두 글의 관점을 <가>의 두 현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리성과 기술의 체계성을 평가

③ <나>의 논지들을 이해한 후, <가>에서의 '단노우라 어부'들의 현상 인식 방식에 단계적으로 적용함

- 단노우라 어부들은 계의 등딱지에 나타난 무사 무늬를 보고 그 바다에서 죽어간 선조 무사들을 떠올림. 이것은 <나>의 인과율과 관련됨

④ <다>의 논지들을 이해한 후, <가>의 서술자의 현상 인식 방식에 단계적으로 적용함

- 사무라이 계들의 등딱지에 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인위 선택의 결과로 보는 서술자의 인식은 과학적 인식 방식임

- 한편, 과학적 회의를 통해 볼 때 이 인위 선택이라는 결론 또한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다>의 과학적 '회의주의'를 <가>의 '인위 선택'에도 적용함

· Key Word : 헤이케 계, 살려 줌, 인위 선택

[1회차 인문계열문항 2] 모범답안 예시

<나>는 인간에게는 우연하고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 그 인과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욕구나 본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이러한 욕구나 본능은 위기의 시기에 더욱 강박적인 믿음이 되고,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적 불쾌감은 물론 불안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인과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면서까지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애쓴다고 본다. 나아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비한 세력과 연관 지어 생각함으로써 초월적인 믿음으로까지 가지치기해 나감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가>에서 보이는 헤이케 후손들의 행동과 연관된다. 헤이케의 후손들은 무사의 얼굴을 닮은 무늬의 게가 바다에서 잡혔을 때 그 모습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바다에서 잡히는 그러한 무늬의 게는 불쾌감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 게의 등에 새겨진 '무섭게 찌푸린 무사의 모습'은 '패배하며 굴욕적으로 죽어갔던 선조 사무라이'들의 모습과 연관 지어 해명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게를 선조들의 환생으로 여기는 초월적 믿음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그들을 기리며 바다로 살려 보낸 것이라 하겠다.

<다>는 과학은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반증 가능한 진술로서, 많은 것들을 과학의 영역으로 만들어 왔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게 해 주었다고 본다.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영역이며, 잘못된 과학적 진술이 있다면 이를 회의를 통하여 교정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의 서술자는 신화의 방식으로 설명되던 '헤이케 게'의 등딱지에 새겨진 무사의 얼굴을, 인위 선택의 한 결과로 본다. 이는 반증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학적 가설로 충분하며, 신화의 어렴풋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가설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의주의적 태도로 검토해 볼 때, 불안한 요소는 있다. 가령 이 게가 반드시 이 지역에서만 잡히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그것이다. 만약 이 게가 한국이나 멕시코 등 '단노우라'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이 잡힌다는 반례가 있으면 이 게의 번성이 인위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가설은 수정의 대상이 된다.